

광주·전남 기업들, CES서 지속가능 미래 비전 선봬

양 시도 공동관 및 홍보관 운영 AI·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뽐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한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역량을 선보이며 미래 비전 제시에 앞장설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7일(현지시간)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에 지역 기업과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7월 ‘CES 2025’ 광주 홍보관에 참가할 기업을 공모, 총 15개사를 선정했다.

㈜오니온에이아이, 주식회사 울더타임, ㈜사각, 주식회사 메리랜드 4개사는 KOTRA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에 참가해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광주시 공동관에는 ㈜인비즈, 주식회사 정선메드, ㈜트위그림, 이-솔테크, ㈜아트랩, ㈜인디제이, ㈜호그린에어, ㈜리버트리, 주식회사 유니컴퍼니, 에코피스주식회사, ㈜블루캡솔 등 11개사가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운영하는 광주공동관과 KOTRA의 통합

한국관 내 광주관 등에서 우수 기술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기술기업이다. ㈜인비즈는 의료영상정보시스템 및 심장초음파자동화 인공지능솔루션 ‘AI 에코 케어’, 에코피스는 수상레저 활동과 함께 수질정화 기능을 갖는 융복합 제품 ‘힐링보트’, 이-솔테크는 에너지절감 및 IT기술을 적용한 ‘다목적 모듈러 챔버’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이 직접 지역기업들을 이끌고 ‘CES 2023’에 첫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CES 2024’에 광주공동관과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을 동시 운영의 2개관을 동시 운영했으며, 올해 ‘CES 2025’에는 인공지능(AI),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해 15개 기업이 글로벌 기술력을 자랑한다.

광주시가 선정한 이들 15개 기업 외에도 지역기업 21개사가 이번 ‘CES 2025’에 함께 출전하고 있다.

KOTRA의 지원을 받은 영앤, 디닷케어, 라라랩스, 주식회사 알엑스오는 통합한국관에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C-LAB 지원 기업인 ㈜고스트패스, 마인스페이스도 CES에 진출한다. 특히 고스트패스는 이번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마인스페이스는 혁신상을 수상해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주식회사 오토웰츠, ㈜엘앤에이치랩스, ㈜그린토크, 맵스, 웨어플랫을 이끌고 ‘CES 2025’에 참가한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에스오에스랩 등 3개사는 개별적으로 CES 2025에 참가하고, 행정안전부·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의 지원을 받은 7개사도 CES 2025에서 글로벌기업들과 기술력을 겨룬다.

광주시는 지역 우수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시장에 선보이고, 해외 반응을 보는 한편 기업들 스스로 역량을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또한 같은 날부터 CES 2025에 참가해 전남지역 혁신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공동관을 운영한다.

올해 CES 주제는 ‘몰입하라(DIVE IN)’로 전남도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지속가능성 등 첨단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과 함께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세계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도 지난해 11개사에서 15개사로 늘렸으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존을 새롭게 구성했다. 체험존

은 ㈜뉴작과 ㈜휴먼아이티솔루션이 운영하며, 신체 착용 기기 없이 메타버스를 체험할 혁신 기술을 적용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뉴작은 메타버스와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받은 만큼 전남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기업들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안그린테크는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과 농업용 유동팬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솔루션을 제안, 테라웨이브는 물 순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챔버형 스마트팜을 전시한다. 피투제이는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운동 분석 기술로 헬스케어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선보이며, 네오드림스는 재활치료용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의료 기술의 혁신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와이그림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기술로 창의적 디지털 경험을 선사하며, 스마트큐브는 홀로그램 기반 관광 안내 시스템으로 스마트 관광의 비전을 제시한다. 아이오티플러스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하이브리드 인버터를, 비케이에너지는 회전식 수상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소개한다. 에이비알은 재제조 양극·음극 소재 기술로

자원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인지솔루션은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시스템으로 교육 혁신을 선도한다.

이외에도 포비드림의 재난 대비 장비, 터빈크루의 무선 충전 드론, 에이스퀘어의 스마트 농업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이 전시된다.

또한 전시 기간 ‘전남 대학생 참관단’으로 구성된 5개 대학 6개팀 50여명이 방문해 첨단 기술과 글로벌 산업 동향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관 개관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 글로벌 전남 퍼포먼스와 함께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조형근 전남도 국제협력지원관은 “CES 2025는 전남의 혁신 기술과 글로벌 비전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전남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CES 참가를 통해 첨단 농생명 벨리, 재생에너지100(RE100) 산업단지,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등 주요 프로젝트를 홍보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전남농기원, 폭설·한파 농작물 관리 당부

하우스 저온·축사 보온 등

전남농업기술원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도내 곳곳에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과 급격한 기온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재배 중인 농작물과 시설물의 저온 피해를 위한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비닐하우스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지붕에 쌓인 눈을 수시로 제거하고,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비닐을 찢어 구조물 파손을 방지해야 한다. 난방기가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경우 난방기를 가동해 눈이 녹아 흘러내리도록 하고, 주변의 배수구를 정비해 녹은 눈이 하우스 내부로 스며들여 작물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딸기, 고추, 토마토 등 열매채소와 화훼

류는 야간 온도를 12℃ 이상, 배추, 상추 등 잎채소는 8℃ 이상 유지해야 하며 온풍기 등 가온시설은 수시로 점검해 고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동 중인 보리, 마늘, 양파, 사료작물 등은 눈이 온 후에 배수로를 정비해 물빠짐을 좋게 하고, 비닐, 짚 등 피복물이 덮혀 있는 마늘, 양파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피복물을 점검·보완해야 한다.

축사의 경우 가축의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해 보온 관리에 힘쓰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나 개폐기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기온 저하로 인해 가축의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는 만큼 사료 급여량을 10~20% 늘려 주고, 조류인플루엔자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오지현 기자



북구,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가공팀 직원들이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북구 관내의 한 설 성수식품 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와 자가 품질검사 적정성 등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도립도서관, 올해의 책 선정

도민 책임은 문화 확산 앞장 ‘여기는 괜찮아요’ 등 총 4권

전남도립도서관은 도민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여기는 괜찮아요’ 등 2025년 전남도 올해의 책 4권을 선정했다.

올해의 책 선정은 도민과 전남지역 도서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책을 대상으로 지역 작가와 교수, 사서, 교사 등 16명으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 심사와 온라인과 현장 도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선정된 도서는 문학, 비문학, 청소년, 어린이 4개 분야 1권씩으로, 문학 분야에는 전성태 작가의 ‘여기는 괜찮아요’가 뽑혔다. 분단, 여순사건, 세월호 참사 등 현대사의 사건을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오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소설이다. 오지현 기자

비문학 분야에서는 수많은 뉴스와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하는 김인정 저널리스트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가 선정됐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추정경 작가의 ‘열다섯에 곱이라니’가 이름을 올렸다. 정체 불명의 현상으로 갑자기 동물이 되어버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춘기 아이들의 성장기를 담은 소설이다.

어린이 분야는 김다노 작가의 ‘최악의 최애’가 차지했다. 열세살 아이들이 사계절을 겪으며 달콤한 사랑, 우정, 성장하는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동화다.

전남도립도서관은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책을 ‘시군 순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도민 책 읽기 운동을 펼치고, 하반기에는 ‘독서왕 선발 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인상... 현실화

13세 이상 월 9만원 올려 45만원

광주시가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9만원 인상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령에 관계없이 1인 월 36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원을 지원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4만원 인상한다. 또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원을 인상한다.

광주시는 가정위탁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권고안에 맞춰 연령별 차등 확대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취학 이후 양육비용 소모가 많은 7세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인상을 통해 양육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지역에는 300여명의 가정위탁 아

동이 있다. 광주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전문아동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가정위탁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월 36만원씩 지급했지만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